

“禪, 언어학적 연구 필요”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금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껏 별다른 저항없이 선불교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선의 세계를 언어로 다가갔다는 시도는 불가한 일인가? 물론 이런 물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이른바 계승이라는 것도 정교한 언어 구조물임을 볼 때 선의 세계에 언어로 다가가고자 함은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다.

한국선학회의 17일 월례발표회에서 김태완(부산대 강사) 씨는 ‘선, 언어, 선화- 좋은 선학을 위한 하나의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선어(禪語) 연구의 필요성을, 이어 24일 열리는 선어특연구회의 첫 논문발표회에서 송인성(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씨는 ‘조당집’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선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선학회 월례발표회 김태완-송인성 씨 제기

전통적으로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즉 비언어적인 체험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는 언어학적인 접근으로 선의 세계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부정됐다. 선어(禪語)를 선을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지침서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번역서가 일본이나 중국의 성과물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씨가 논문에서 “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언어”라며 “선을 연구하는 선학(禪學)이라는 차원에서 선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은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선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의



국내에서 널리 읽히는 주요 선어록들.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국 불교의 선사상이 선교합일의 전통을 세운 조 스님에 의해 출발한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스님이 꽃피운 선학의 방법론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의 주장이 선어 연구의 필요성 제

기라면 송 씨의 주장은 선어(禪語) 연구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송 씨는 논문에서 우선 ‘조당집’을 예로 언어학적 관점을 배제할 때 범할 수밖에 없는 번역의 오류를 지적했다. 송 씨에 따르면 ‘조당집’에는 당·송시대의 속어들이 나오는데, 잘못 풀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차(要旨)는 ‘요컨대·결국·어쨌든’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여전히’로 보아야 하고, 조만(早晚)은 ‘조간’이 아닌 ‘언제’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송 씨에 따르면 언어학적인 무지에 따른 이러한 오역은 ‘경덕전등록’, ‘백암문’ 등 선어록 번역서 대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선어록 번역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하고 선어록 관련 언어 입문서, ‘역주본’, ‘사전’ 등을 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호(동국대 선학과 전임강사) 스님은 “선사들은 깨달음의 경계를 계승으로 표현했지만, 언어로만 깨달음을 이르지는 못한다”며 선에 대한 언어학적인 접근을 인정하면서도, 실습수행을 외면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여의주 희롱하는 두마리 용

의상과 선묘 이야기②

도입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장》

의상과 선묘에 관한 얘기는 송나라의 찬녕(919-1002)이 982년부터 988년에 걸쳐 편찬한 ‘송고승전’의 ‘당신라국상전’과 고려의 일연(1206-1289) 스님이 1282년경에 쓴 ‘삼국유사’의 ‘의상전(義湘傳)’과 일본의 명해(明海·1173-1232) 스님이 1228년경에 쓴 ‘화엄종조사회전’ ‘일명 ‘화엄연기’라고도 하는데 일본 국보대에 전하고 있다.

찬녕의 잘못된 신라 인식

이 세 가지 자료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찬녕의 ‘송고승전’이다. 왜냐하면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에 의상에 관한 기록을 전하면서 ‘최치원 본전’과 ‘원효대사의 행장’에 의해 말하고 있으며, 일본의 명해의 ‘화엄연기’는 ‘송고승전’의 의상전 가운데 의상이 신라를 출발해서 당나라에 도착한 후 등주에 머물던 장면과 선묘가 의상 스님을 위해서 법복을 장만해 주고 기다리다 어느 날 의상 스님이 신라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나가 ‘원하옵나니 이 몸이 변하여 큰 용이 되어 배가 무사히 신라에 도달하여 화엄 대법을 전하기를 서원하옵니다’라고 발원하면서 바다로 뛰



호하는 화엄선인이 되겠다고 발원하고 바다에 뛰어든 낭자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봉래각에서 동북쪽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갔다. 선묘가 죽어서 용이 되었다면 이곳 어디가는 틀림없이 용에 관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봉래사에서 등주(登州)로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면 복관로가 나온다. 복관로에서 좌회전해서 북으로 가면 농야학교가 있는 5거리가 나온다. 그 5거리에서 좁은 길을 따라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천황산이 나온다. 천황산에서 바다를 향해 서면 오른쪽으로는 봉래 해수욕장이 그림 같이 펼쳐져 있고 왼쪽으로는 의상스님이 천신만고 끝에 도달했을 듯한 봉래항이 있다. 봉래항을 향해 가던 필자는 ‘아!



등주 해변에 있는 석조 조각. 이를 기점으로 황해와 발해로 나누어진다.

저 것이다’라고 탄성을 질렀다.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높이 3.5미터의 두마리의 용이 서로 마주보면서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 석조상이 그곳에 있었다. 이곳은 이 석조상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발해 오른쪽은 황해라 불리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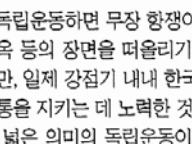
등주 바다에 몸 던진 선묘

의상스님께서 이곳에 오실 그때부터 이곳은 용신앙이 깊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용신(龍神)은 화엄경 ‘세간정안품’에 보면 항상 부처님을 위해서 도량을 장엄하는 신이며, 불법과 화엄법사를 호호해주는 화엄신중 가운데 하나다.

의상스님과 선묘 이야기는 실화만 설화 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묘가 의상스님을 만나 사모의 정을 품고 기다리다 이등주 바다에 몸을 던진 것까지는 실화다. 그리고 용으로 변한 것은 이 지방의 용신앙에 기인한 것이며 선묘의 죽음을 화용(化龍)의 설화로 승화시킨 것은 찬녕 스님의 뛰어난 작품이다.

“만공스님의 선학원 설립 日 사찰령 맞선 항일운동”

이재현 박사 주장



독립운동하며 무장 항쟁이나 투옥 등의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제 강점기 내내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데 노력한 것 역시 넓은 의미의 독립운동이 아닐까? 이재현(강남대 강사·사) 씨는 30일 수석사에서 ‘만공과 한국군’을 주제로 열리는 무불선원(이사장 법장)의 제3회 학술회에서 ‘만공선사와 독립운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독립운동가로서 만공 스님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 씨에 따르면 만공 스님(1871-1946)이 일제 강점기에 보여준 행적은 사찰령이나 불교병합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일본의 통치체제에 맞선 독립운동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우선 조선총독부의 의해 시행된 사찰령이 한국 불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총독부의 의도라는 것을 간파한 만공 스님이 선학원을 설립한 것에 주목했다. ○○사(南)나 ○○암(庵) 등의 이름을 피한 계열의 사찰령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스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이는 그 자체로도 항일운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씨는 만공 스님이 1933년 3월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불교 진흥회를 논하는 31본사 주지회의에서 “총독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라며 일본과 한국 불교를 통합하지는 조선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한 일화며, 전국 31개 본사 주지 가운데 유일하게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던 데도 주목했다.

이 씨는 결론에서 “불교계는 지난 역사를 연구해서 항일 의미를 찾는 노력을 등한히 했”다며 군군모집, 독립지사의 은거지 제공 등 사찰 특유의 독립 운동과 관련된 비화·발굴을 통한 관련 학계의 연구를 촉구했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만공의 불교사적 위치(김종명), 만공의 선사상(호탄 스님), 만공의 법맥(민해당), 만공이 현대 한국선에 미친 영향(이덕진) 등도 발표된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조선불교 연구방향 모색

조계종 제22교구 대운사(주지 보선)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조선불교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선시대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보선 스님의 기초 발제로 시작될 이번 세미나에는 김상현(동국대) 교수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방향’, 김성영(중앙승가대) 교수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이 발표된다. 0611534-5502

‘신라문화’ 17·18 합집

신라문화연구소에서 ‘신라문화’ 제 17·18 합집을 발간했다. ‘삼국시대의 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논집에는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인의 신선신앙(전호태), 백제 불상의 훼손문제와 화엄경(곽동석), 부여 능산리사지(김종만),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노중국), 원효와 경흥의 ‘금광명경’ 주수에 나타난 신라의 천문·성속 세계관(김일권), 신라시대 양제에 관한 일시론(윤선태) 등이 실렸다. 0547170-2502



◊불회사대웅전 내부 공포 단청.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물’ 지정예고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다포계 건물인 전남 나주 불회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회사 대웅전을 8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조선 정조 23년(1799)에 증건된 불회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외부 양식은 흔히 볼 수 있는 조선후기 다포계 건축양식에 속한다. 그러나 가운데 칸의 양 기둥 사이로 두마리의 용을 조각하여 머리는 밖으로 나오게 하고, 꼬리는 건물 안쪽 대들보 밑에서 멈추게 한 수법이 부안 내소사 대웅전(보물 제291호) 등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사찰건축수법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건물 내부 장식 또한 화려하다. 우물 정(井)자 모양의 천장에는 양쪽 대들보 사이로 역시 두마리의 용을 조각하여 서로 중앙을 향해 마주보게 했다. 천장 주위에도 장식을 했는데 22개의 벽화(가로60cm×세로60cm)를 그려 대웅전의 장엄미를 돋보이게 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극에 달한 물질문명과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선과 21세기

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저자가 몸소 체험한 선 이야기를 펜으로 옮겨 보았다. 극도로 오염되고 훼손된 정신세계의 복원과 인간성 회복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요즘 들어 일기 시작한 고진 붕에 편승하기에 앞서 선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저자가 쉽고 편안하게 들려주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서의 선의 역할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해 놓고 있어 현대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안내서의 역할도 훌륭히 해 주리라 믿는다.

선과 21세기
석원현 지음/값 6,600원

선방의 이침
선당 생활을 체험한 선승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곁들인 안내서

짧은 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화집

도서출판 돌북북리 서울시 중구 송인동 72-70 연남빌딩 4층 전화 02)3672-1387 팩스 02)762-1387 E-mail draba21@dreamwiz.com

2001년 포교사 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건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 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망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법)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들이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강의시간
주 2일 월·수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아간수업
직정인을 위한 아간(토요일)운영 ◎ 개강 : 3월 19일
-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사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수론, 변이사상, 불교사학사, 불교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2학기 - 불교경전 개론,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선종사상
-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신스님, 운곡스님, 오곡교수, 오형교수, 리영지교수, 서운길교수, 박경준교수, 한정섭박사, 이혜숙교수, 김시범박사, 경원교수, 이보봉스님, 문보경스님, 노병신스님, 장각성스님, 구원스님, 최홍주스님, 최충찬교수, 이근호교수, 김철호교수, 임선영교수, 허문범, 권대일박사, 김일홍박사
- ◎ 모집 및 진영 (2년제 아간 - 출강, 통시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시 100명
-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보고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 진영방법 서류전형, 선척성 등락금(1학기) 30만원
-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증,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중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인, 종단 추천 스님(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이사장, 학장, 교수, 봉사, 기태 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이예철

중국 최고 국립한약대학

산동 중의약대학 학생모집

모집요강

- 한의대학생 모집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계없음
중의외과	5년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② 유학생 신청서 1통
중약학과	5년	③ 여권용사진 8매 ④ 국제 건강 진단서

학교소재

-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제약공장, 교육병원, 제약연구소 등
- ▶ 외국인 기숙사 6반
- ▶ 군입대 연기 (6년)

■ 주소 : 中國濟南經十路53號
■ 중국학교 전화 : 0531) 296882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51)626-4730 · 051) 469-1239
H.P : 016)9833-77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습관으로 문의 바람

대한불교약사중 충무원